

# 도둑맞은 광주·전남 문화유산 수십 년째 '행방불명'

## SOCIETY

2025년 3월 6일 목요일

### 광주 4건·전남 52건 도난... 국가지정문화재도 7~40년 자취 감춰... 관리감독 부실로 회수 난항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상당수가 도난당한 이후 수십 년째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도난당한 유산들은 국가지정유산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까지 포함돼 있어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현재 등록돼 있는 광주·전남지역 도난 국가유산은 총 56건(광주 4건·전남 52건)이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한 문화재다.

도난된 문화재들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중 4판은 1982년(추정) 도난 피해



지난 1982년(추정) 도난 피해가 발생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중 일부.



지난 2006년 도난된 필암서원 하서유목 목판 중 목죽도판.

가 발생한 지 43년이 흘렀음에도 행방이 묘연하다.

또 전남 유형문화유산 제216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하서유목 목판 중 목죽도판' 3점은 지난 2006년 도난된 이후 자취를 감췄다.

해당 도판은 조선시대 인종 때 학자인 하서 김인후(1510~1560)와 관련된 문서들을 새긴 목판으로 판각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제는 도난된 문화재 중 추후 지정 또는 등록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문화재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지정유산의 경우 관리 감독이 부족한 데다 자연풍화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가 많고 도난의 우려도 크다.

실제 지역에서 도난된 국가유산 중 국가지정유산 1건(광주 0건·전남 1건), 시

도지정유산 7건(광주 1건·전남 6건), 비지정유산 48건(광주 3건·전남 45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난 비지정유산의 대다수는 백련사, 선암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 문화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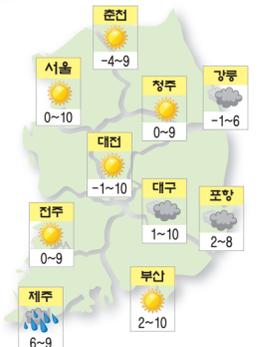
하지만 도난 당시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해 문화재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난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도난 문화유산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난 국가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회수를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 등은 도난, 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법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6:56 달출 10:35  
예보 18:32 달림 00:50



광주	☀️	0~9
목포	☀️	1~7
여수	☀️	3~10
순천	☀️	1~11
구례	☀️	0~10
광주	☀️	0~9
임도	☀️	1~10
진남	☀️	3~8
고흥	☀️	1~11
진도	☀️	3~7

목포	밀물(고)	06:51 / 18:46
	썰물(저)	11:47 / 23:56
여수	밀물(고)	01:18 / 13:08
	썰물(저)	07:12 / 19:30

### 대광고와 통학로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만년필 ○·광주 남구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신축한 부동산 회사에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

5일 남구는 지역 부동산 회사가 고교 통학로 2곳에 18㎡ 크기의 컨테이너를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는 무단 신축한 컨테이너를 현재까지 시정(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회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통학로 일부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져.

남구는 오는 19일까지 원상 복구하거나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임영진 기자 looks@

### 임금 6억원 체불 50대 건설 사업주 입건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 3곳에서 근로자 200명의 임금 6억원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56)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 3곳에서 근로자 200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피해자들 신고를 받아 지난 달 근로감독을 실시, A씨 범행 사실을 파

악했다.

여수지청은 A씨 여죄를 상세하게 조사한 뒤 대지급금(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새학기를 맞아 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동아리 박람회서 학생들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도심 주행하던 승용차서 화재 잇따라

#### 소방 진화... 인명피해는 없어

광주 도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압됐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 일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3시59분에는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30명, 장비 11대를 투입해 오후 4시5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수 50대 징역 5년 구형

#### 7개월간 동일 범행... 청소년 5~6명 추가 피해 수사중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공판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16세 미만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감염성 성병인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판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들났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5년

과 취업제한 5년, 신상 공개·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현재 광주 광산경찰에서는 A씨의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한편 광주 여성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